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만법의 원동력은 내안에 있다”

17면에서 계속

일상속 바른 수행법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져서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도 그중의 한 사람이 돼서 겪었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스님께 가르침도 청하고저 합니다.

제가 한 실업년 동안 운영하던 회사를 지난 2월에 팔고 그 회사를 판 돈까지 전부 새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두 달 동안 그 계획을 실행하다보니 생각보다 어렵게 계획했던 일들이 다 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냥 끔찍하면서 어디를 돌아봐도 길이 안보여요.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세상에 이렇게 막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약 1주일쯤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거의 감옥 아닌 감옥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일주일에 한번씩, 찬불가 할 참은 부지런히 했습니다. 합창을 하면은 열린 마음과 맑은 소리를 내도록 노력하니까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시원하고 잡념이 없어 지거든요.

아래까지 잘못 끼워진 거죠. 그 반면에 누워치고 다시금 바뀌어 끼웠기 때문에 인제는 방향이 올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어떠한 문제도 개의치 마시고,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눈도 깜짝거리지 말고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나가신다면 남한테 꾸러 다니지도 않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여한 거지 뭐니까. 모두가 여여하게 살 것을 그렇게 복잡다단하고 괴로움에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놓고 살아가, 죽어야 너를 본다고 하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살아서 죽는 걸 알아야 죽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죽는 건 열반이 아니고 살아서 죽어야 그게 열반이에요.

그럼 벌써 과거 미래 현재 삼세가 공해서 막 돌아가요. 그러니까 공법으로 다 그냥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여여해요, 얼마나 편안하고, 그리고 얕은 사랑보다도 깊은 자비가 샘솟듯 한단 말입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



그림 · 최주현

“살아서 죽는걸 알아야지 죽어서 죽는 것은 열반이 아냐 살아서 죽어야 삼세가 공법으로 돌아가요”

래서 스스로 남에게 말 한 마디, 한 가지 행, 한 생각을 해도 이게 법이 돼서 그냥 보시게 돼야지, 이것은 내가 물질 요만큼 들고선 이걸 보시를 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 벌써 받은 내가 욕심으로 하고 있으니 결국 그 값어치는 나한테 올리가 없죠. 오히려 욕심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딸려 들어오는 악의적인 문제들이 거꾸러져 생기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신다고 해서 그냥 몸중이를 편안하게 두시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두시고 뛰어야 몸도 건강하고 또 뛰워 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는 사이 없이 뛰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뛰는 것은 발차기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뛰는 건 발차국이 남습니다. 오늘 길게 말씀을 하신 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이 되었으니 참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체간 에너지 전달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스님 법문 테이프를 가지고 비닐 하우스에서 식물을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물을 기르면서 스님 테이프를 틀어놔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식물의 성장이 훨씬 빨랐고 수확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의 말씀 중에 음파에는 에너지가, 파동이 실려서 그것이 그대로 식물에는 이 식(識)이 열어나가 그대로 바로 전달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식이 아무래도 복잡하니 바 비록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님이 말씀하시는 게 음파는 분명히 정신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타낸 것은 물질 에너지적인 힘으로도 나타났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인간이 식물보다는 고등동물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그러한 누진으로서의 음파를, 그 에너지원을 스님이 사용하시는 그 에너지 바다에 그대로 같이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음파를 발생 해야 되겠는데 스님처럼 그렇게 되기는 저도 지금으로서는 감히 바라지 못하겠고요, 스님과 저희들 중생계의 중간쯤에 있는 그 중생계의 생명체들은 이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가려져 주시면, 제 연구에 적용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애당초에 말하고 싶었던 것도 거기에 관련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내고 또 생각하고 행하고 이럴 때 그대로 에너지가 음파로서 발생됩니다.

우주의 근본도 우리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이 만물만생하고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나가는 그 법도 이게 평등 공법에 의한 음파니까 음파가 전부 나감

“편하게 살려면 몸 편하려 말고 마음을 편하게 두고 뛰세요 그럼 몸도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모든 것을 만드는데 정신계의 음파, 정신계의 법, 공법, 그것을 음파모드가 펼쳐서 모든 사람한테 정신계의 에너지를 넣어준다면 아마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듣는 게 아니라 저 미생물에게까지도 음파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쓸 수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기 위해서도 해봐야 되는 거다 이 소립니까, 자기가 어떠한 과정에 쓸 수 있는가, 어떠한 삶을 살면서 어떠한 과목을 내가 가지고 이날까지 살아왔는가. 그런 산 것대로 거기서 지혜가 생기고 그랬을 때 '아,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 공법의 음파는 어디든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다 고 한 모든 것은 모두 놓아 버리고 오로지 저의 참사명을 향해서 끝없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할 때에 내가 나를 버린다고 해서 이 생활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끈찍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진정한 회향법이란

저는 스님께 회향법에 대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어떤 경계가 딱딱할 때 감시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느 땐가 부처님께 회향하고 모든 스님께 회향한다고 이렇게 항상 마음을 냈거든요. 그런데 뭔가 분명히 아쉬운 게 남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 진짜 본인의 자기 자신한테 회향하지 않고 부처님과 스님한테 생각하고 말로만 회향했던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기를 '너 자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 진짜 자신한테는 회향할 줄 모르고 부처님과 스님께 생각하고 말로만 했으니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네 자신에게 회향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에 감히 스님께 질문드립니다.

잘 생각했어요. 자기가 통누고 자기가 믿을 짓고 '아이구, 시원하다'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스님이 거기 끼어들어 감니까?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부처님 부처님 하더니 자기는 그냥 망쳐놓고 말았죠. 부처님이 대신 통누 뭐? 밥 먹어줘요? 회향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통누고 믿을 짓는 것도, 깨끗하게 씻는 것도 회향이에요. 크고 작은 게 따로 없어요. 일을 하고서 잘 정돈하고 잘 주고 받고 씻는 것 없이, 고마움을 그저 고맙다고 해서 끝을 맺고 이러는 게 바로 회향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고도 그 은혜를 바깥으로 돌릴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갖게 해준 주인공한테 감사하는 게 회향이니까. 자기 주인공에 한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중자가 이 허공 안에 확장하다 하더라도 바로 한 중자가 두 중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중자가 하면 다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스님네를 불렀는데 집이 주인공에게 하면 네 주인공도 돌아오니 까닭에 전부 회향이 되는 거죠. 스님은 배 놓고 회향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더불어 일체제불까지요.

마음으로만 하는 문법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예

를 들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굳이 찾아가서 뭐 격려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몸으로 가는 것 보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음으로 돌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때문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정이 메달리고 부득이하게 못 갈 형편이라면 할 수 없지만 찾아갈 수 있다면 정도 나누고 얘기도 하면서 마음을 서로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를 같이 자음에 달아도 기울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가야 그쪽도 집이 온 줄 알죠?

온 줄 아는 그 마음이 전지불과 전지불이 같이 붙어서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쪽에서 도통을 해서 드러누워 있다면 왜 집이 가고 오고 해야 돼요?

“이날까지 어떻게 살아왔던가 산대로 거기서 지혜 생기고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가 수행의 핵심이 아닐까요”

하하 그러니까 서로 만나야 마음이 붙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세계도 버려서 되는 게 아니고, 즉 말하자면 육신을 버리면 공부 못해요. 육신도 소중하고 정신계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정신계로 인해서 육신이 생겼거든요. 정신계로 인해서 육신이 형성됐고 형성된 자체를 끌고 다니는 정신계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가 돼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아시면 그대로 아주 훌륭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부처님을 모셔왔으니까 '아이구 부처님은 나보다 더 귀중하고 나보다 더 위대하시지' 이러지만 '아, 부처님을 이렇게 절에다가 내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 속에다가 아주 모시고 다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족 속에다 넣고 다니지 왜 바깥으로 들고 다니냐고 원효대사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으면 배우질 못하니가 방편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방편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큰 경계 딱칠 땐 어떻게

스님께서는 항상 유훈법과 무위법 양면을 다 놓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계가 올 때 마다 양면을 다 놓고 나가는데 항상 유훈법 쪽에서 큰 경계가 밀려옵니다. 이 경계를 약 2년간 부딪쳐 오고 있습니다. 큰 경계가 아직도 해결 안된 게 있지만 저는 죽으면 죽었지 물러날 마음은 흔들 만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면을 다 놓고 나가는데 생사까지 다 놓는 것이 그 양면을 놓는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맞는지 그럴 여쭙고 싶어요.

또 놓고 지켜보는데 지켜보는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을 줄입니다. 지켜를 때는 화두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지요, 아니면 해결될 때까지 계속 관해 아 되는데도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지켜보는 놈이 있고 하는 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볼 것도 없고, 진짜로 믿는다면 지켜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신계의 물질계가 하나가 돼서 돌아가는데, 될 정신계니 물질계니 이런 이유가 거기 들어감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치는 대로 부딪치는 대로 거기다가 놓으라는 얘기죠. 거기다 일임을 하면서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대로 정신계에서 물질계로 나오듯이, 우리가 삶에 살을 넣으니까 그냥 익어 나오더라 이런 거와 같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병고라든지 제 몸이나 식구들, 또는 제가 아는 사람들 일은 놓고 맡기고 관하면은 잘 통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세계에 얽혀 있는 이 큰 경계를 넘는 시일이 흐르기 때문에 그게 잘 안됩니다.

그런 것도 생각지 마세요. 물질세계에서 어떤 것이 걸리든 내가 금방

지금 이 자리에서 죽든 아무 참견을 마세요. 님의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가 님을 형성시켜서 끌고 다니는데 왜 님의 마음이 편히 이렇다 저렇다 하고 걱정을 해야 합니까? 죽으면 살리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리고 님하고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사를 놓고 나가면 그것이 이 맞는 방법입니까?

네, 맞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도리를 알면요 내가 차를 몰면서 이거 사고나면 어쩌나, 또 내가 어디가 아프면 이거 모진 나쁜 병이 들리나 않나, 이거 자식들 두고서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런 고달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있죠. 죽는다는 하는 사람은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머리카락 자꾸 빠져 고민

저는 군에서 제대하고 직장을 새로 다니게 되었습니 다. 저는 아직 총각인데요, 예전엔 머리카락이 많았는데 요즘 거울을 보면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장가 가는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신경이 쓰여서요. 한번 말해보자, 관

해 보면 다시 나는 도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스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내가 뭐했습니까? 일거수 일투족이 다 그놈이 하는거니까 그놈한테다 보라,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이걸 얘기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 머리카락이 빠지면은 이거 빠지면 장가도 못들잖아. 너,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나야.' 하셔서 그냥 거기다가 놓으라 말입니다. 생각 날 때마다 그렇게 놓으세요. 그럼 오히려 솔이 많아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 만법을 그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원동력을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꺼내쓰는데 용도를 어떤 차원에 쓸 것인가, 어디다가 쓸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에너지는 크게도 쓸 수 있고 적게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허공에도 꼭 차있고 내 마음 그 줄에 따라서 전부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이 도리를 알면 절이치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쓸 때에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사는 날까지 내가 옷을 새로 신식으로 바꿔서 입었다 하지 않는 이상에는 좀 오래도 살 수 있구요. 그러니까 너무 못쓰게 되면 좀 바꿔 입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꿔 입는다는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차원이 높아질수록 달라지니까 머리 내가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나와야겠다 저렇게 가지고 나와야겠다 하지 마세요. 정말 옷을 벗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면 그 생각으로서 그냥 그냥, 생각했던 그 자체가 그냥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떠한 것을 마음으로 연구했다니 물질세계로 나왔다 이러는 걸 좀 연구들 안 해보시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 이거 심상과학 연구팀들도 그렇지만 마음공부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연구팀이다 이 소립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파악하고 생각하는 것도 연구니까요. 연구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신차리셔서 우리가 조그만 것도 크게 할 수 있고 큰 것도 조그맣게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자유자재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구경물도 도(道)예요. 구경물에 빠지는 것도 도고 하나 버릴 게 없는 것이 도예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는 것이 되고, 다 버리는 게 되고, 이러니까 두 가지 다 양면이 다 버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버릴 게 없는 것을 다 버리고 나면은 그것은 버릴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자유자재를 얻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러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다 해보시면 아시게 됩니다.